구현행복과 지족행복

| 용타스님 |

행복을 구현해야 하는 미래형 소유와 이미 지족한 기존소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4부)

021. 행복공식 :

지난 회에 정리해 두었던 행복공식을 기억할 것이다. 〈행복이란 욕구하는 것이 소유될 때 오는 긍정적인 느낌이다〉라는 명제를 공식(公式)으로 정리하면 [행복=소유/욕구]이다. 이 행복공식을 잘 살펴보면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중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 일반을 타락으로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구원론이 이 행복공식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참으로〉라는 수식어를 세 번이나 외치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공식이 인간을 위한 구원론이며 전(全) 역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타(方向舵)가 되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행복공식과 행복공식이 담고 있는 세 개의 행복론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이 행복론은 그것을 수긍하고 관행하기만 하면 누구든 무한 행복, 무한 해탈, 무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논지임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이하의 단상(斷想)은 가능한 한 행복(幸福)의 길과 해탈(解脫)의 길로 압축하고자 한다.

행복공식을 잘 살펴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유〉를 잘 살펴보면 소유에 일단 두 종류의 소유가 보일 것이다. 미래형소유(미성소유)와 완료형소유(기존기성소유)이다. 미래형 소유란 미성소유(未成所有: 미래에 이룰 소유)라고도 하는데 지금부터 노력하여 미래에 지니게 될 소유이다. 미래형 소유에 주목하면 구현행복론이 도출된다. 완료형소유란 기존기성소유(既存既成所有: 이미 있고 이미 이룬 소유)라고도 하는데 공기와 물, 심장과 허파 등과 같이 내가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이미 있는 소유(기존소유)나 내가 노력하여 이루어 낸 소유(기성소유)를 의미한다.

완료형소유에 집중하면 지족행복론이 도출된다. 욕구를 잘 살펴보면 욕구에 집착 에너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 집착 에너지가 보다 높을 수도 있고 보다 낮을 수도 있으며, 집착 에너지가 완전히 없을 수도 있다는 통찰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욕구 차원의 집착 에너지가 극소화 내지 제로화 되어 초월되는 초월행복론이 도출된다.

행복공식으로부터 행복론을 정리한다면 [1. 구현행복론, 2. 지족행복론, 3. 초월행복론]이다.

022. 구현행복론(具現幸福論) :

구현행복론이란 〈미래에 욕구1~N을 소유(구현, 성취, 성공)해서 행복해지겠다〉 하는 생각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론1을 말한다. 구현이라는 단어를 실현, 성취, 혹은 성공 등의 말로 바꾸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구현행복론 차원에서 구현에 따른 행복으로는 구현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때의 행복, 구현해 가는 과정의 행복, 구현했을 때의 행복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아마 70억 인류 전부가 이 구현행복론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공(구현)을 돕는 수많은 성공 지침서들이 서점가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70억 인류에게 행복한가 물어보면 몇 퍼센트나 행복하다고 대답할 것 같은가? 다행히 행복하다고 답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마도 절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 구현행복론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원하는 일이 잘 구현(성취, 실현)되게 하는 효과적인 길은 없는 것인가 하는 점과, 둘째,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에 다 만족할 만한 답은 없을까? 단적으로 대답하면 [있다!]이다. 필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의 성공을 위해 그 비결이라 할 수 있는 성공의 원리를 간곡하게 제시하는 일과, 성공을 하든 못하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가르침으로 펴는 일을 하고 있다.

먼저 구현(성취, 실현, 성공)을 위한 원리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진정으로 원(願)함, 둘째: 확신1~2, 셋째: 기뻐하고 감사함, 넷째: 베풂, 다섯째: 계획과 실천] 등 다섯 가지이다. 이러한 구현의 원리에 입각해서 구현해 간다면 대체로 성공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현의 원리들을 조금 설명해 보자.

[진정으로 원함] :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그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당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느냐 하는 것이다. 진정 사무치게 원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 깊은 마음에서 사무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겉마음으로만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의식권에서는 원한다 하지만 무의식권에서는 원치 않는다는 말이다. 겉으로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하지만 무의식권에서는 '청빈이야! 선비는 맑고 가난해야 하는 법이야!' 하고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겉으로는 건강을 원한다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아니야!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늘 부모님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어! 그러하니 건강보다는 좀 아픈 것이 좋아!' 하고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성취의 신(神)이 있다면 나의 의식의 호소에 응하겠는가, 무의식의 호소에 응하겠는가? 간단하다. 단연 무의식의 호소에 응한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의식의 힘보다는 무의식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고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의식권에서만이 아니라 무의식권에서까지 진정으로 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확신1~2] : 다음은 확신이라고 했다. 원하는 일이 있을 때는 과연 원하는 대로 될 것인지 아닌지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이다. 역사적으로 큰일에 성공을 했던 이들은 거의 한결같이 〈될까 안될까 심리〉에서 벗어나 〈확신심리〉를 가졌던 사람들이다. 확신심리란 〈꼭 된다!〉는 심리요, 나아가 〈이미 되었다〉라는 심리이다. 어찌 보면 〈꼭 된다〉는 심리도 만용처럼 보이며, 〈이미 되었다〉는 심리는 황당한 정신병적인 심리 같이 보인다. 그러나 잘 사유(思惟)해보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했다. 모든 것은 마음의 투영(投影)인 법이며, 마음속에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다는 이치이다. 마음속에 〈성취된다!〉는 혹은 〈성취되었다!〉는 염체(念體: 관념 덩어리)가 확고하게 들어있다면 그것은 현실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러하니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는 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원리를 깊게 유념하면서 이 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뻐하고 감사함] : 소망이 성취될 자는, 또는 성취된 자는 기뻐하고 감사해 하겠는가, 아니겠는가? 물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의 밝은 정서(情緖)가 바탕이 될 때 잘 되겠는가? 아니면 무겁고 심각한 기분으로 일을 할 때 잘 되겠는가? 불문가

지(不問可知)이다.

[베풂] : 그리고 이룰 자요, 이룬 자이니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위에 베푸는 일까지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베풂이 성공의 원리 하나로 논의되고 있음에 깊게 주목해야 한다. 베풂은 복을 부르는 법이다. 사람 심리 중에 인색한 사람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만 베푸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은 것이다. 베푸는 이에게 친구가 따르는 것도 같은 이치다. 베풀고 베풀면 차곡차곡 복이 쌓이는 법이다. 복의 에너지가 감도는 사람은 사람이 돕고 귀신이 돕고 신이 돕는다. 성공이 홀로 노력을 해서 된다는 생각은 가냘픈 심리이다. 성공의 볼륨이 클수록 결코 스스로만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대체로 육감적으로 알 수 있다. 콩알이 한 되 밖에 안 되면 한 홉을 베풀고, 반의 반 홉 밖에 안 되면 한 톨이라도 베풀어야 한다. 베풀 콩이 한 톨도 없다면 일손으로 베풀고 웃는 얼굴과 덕담으로라도 베풀어야 한다.

[계획-실천] : 이러한 바탕위에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니, 어떠한가? 그냥 무작정 계획-실천하는 사람과 [진정한 소망 - 확신1~2 - 기쁨 - 감사 - 베풂]이라는 빵빵한 에너지 바탕위에 계획-실천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차별화가 보이는가? 보이는 자 복 있는 자요, 보이지 않는 자 복 없는 자임을 나는 믿고 안다. 어찌 되었든 세상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바 소망이 도덕적으로 악하지만 않다면 두루두루 성취되어 소유가 극대화되기를 빈다.

그리고 다음은 성공을 하든 못하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에 대한 논의이다. 세상사람 전반에게 왜 그리 고통과 싸움이 많을까? 〈욕

구현행복론은 지족행복론의 도움을 받아야만 고통과 싸움이라는 나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여 이 부분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구1~N을 소유(성취)해서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한결같이 불안, 초조, 긴장, 갈등, 두려움, 좌절, 다툼 등으로 점철된다. 줄여서 고통과 전쟁이다. 왜 그럴까? 이를 어찌해야 할까? 70억 모두가 지니고 있는 〈구현행복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대목에서 진정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행복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 이 구현행복론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왜 불가피할까? 생명체로 있는 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요 그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어지는 단상(斷想)에서 논의되겠지만 구현행복론에 바탕되어야 할 마음가짐이란 소유에 대한 올바른 살핌이다.

구현행복론을 잘 살펴보면 미래 언제인가에 성취해야 할 소유, 즉 미래형소유(未來形所有)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행복을 결정하는 두 변수 중 〈소유〉에 대한 인식(깨달음)이 소유전체가 아니고 그 부분이 되는 미래형소유(未來形所有: 未成所有)에 경도(傾倒)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완료형소유(完了形所有)에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라고 할 때 앞으로 미래에 성취할 소유도 있지만 이미 갖추고 있는 소유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완료형 소유가 99.999%로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미 넘치는 소유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중대한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이 바로 행복론2인 지족행복론이다. 구현행복론은 지족행복론의 도움을 받아야만 고통과 싸움이라는 나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여 이 부분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023. 불만사고(不滿思考: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생각)의 특수성 :

행복을 노린다면 단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번뇌구조의 불만사고(不滿思考)에 주목해보라. 번뇌구조에서 불만사고가 어떤 의미인가는 얼핏 느꼈으리라 본다. 불만사고는 번뇌구조의 여러 고리 중 하나의 고리라고만 생각하기로는 너무 중대하고 너무 특수하다. 왜냐하면 불행의 99.99%의 원인이 불만사고(不滿思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어김없이(거의) 불만사고(不滿思考) 때문이다. 불행이란 기분이 나쁠 때의 의식 상태를 말할 것이고, 기분이 꼬였을 때 슬쩍 그 밑을 살펴보면 어김없이 불만사고가 있다는 말이다. 상사가 한마디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불행하다), 상사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아야 만족스러울 터인데 그렇지 못하니(불만족한 상태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다. 부하에게 한 시간 내로 그 일을 하라 했는데 시간 내로 일이 되지 않았다, 요청한 시간 내로 일이 되어야 만족스러울 터인데 그렇지 못하니(불만족한 상태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다. 다 그런 식이다. 그러므로 끝내는 번뇌구조 전체를 문제 삼아야겠지만 일단은 불만사

고 하나만을 다루어 행복의 99.99%를 확보해버려야 좋을 것이다.

이 세상 사람이 해탈이 못되어서 문제인가 행복하지 못해서 문제인가? 단연(斷然)코 행복 쪽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불만사고를 만족(滿足)사고, 곧 지족사고(知足思考)로 전환하는 일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런데 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왜 만만한 일이 아닐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반복하다가 보면 그것은 습관성(習慣性)으로, 타성(惰性)으로 굳어지는 법이다. 〈욕구-좌절-분노〉가 반복되다가 보면 그 반복에 비 해서 불만사고와 부정시각이 습관성(習慣性)으로, 타성(惰性)으로 굳어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구-좌절-분노〉를 몇 번 정도나 할까? 가히 무수할 것이다. 그리하여 습관성으로 굳어진 불만사고나 부정시각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이 된다. 불행의 99.99%의 원인인 불만사고가 숙변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사람 일반의 품성이다. 이것을 풀어낼 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리 말하는데, 그것을 풀어낼 길 하나는 지족(知足)명상이다.

024. 지족행복론(知足幸福論) :

지족행복론이란 〈이미 넘치는 소유(행복) 속에 있다〉라는 행복론2를 말한다. 구현행복론(具現幸福論)에서 일렀듯이 행복공식의 〈소유〉를 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놀랍게도 이미 지니고 있는 소유(완료형소유)가 99.99%를 차지하며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지족행복론은 지족명상을 통해 불만사고를 지족사고로 전환하게 할 뿐 아니라 구현행복론이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취약점을 보완함으

로써 구현의 과정이 신나고 설레는 길임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한다.

지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반 컵의 사이다에 대해 '쌍! 반 컵밖에 없다'라고 불행해 하면서 부족한 반 컵을 채우기 위해 찌푸린 마음으로 구현의 과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족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면 '와! 반 컵이나 있구나!'라고 행복해 하면서 더 있으면 좋을, 반 컵의 사이다를 채우는 구현의 과정을 신나는 마음으로 갖게 된다. 〈안 좋으니까 좋게〉라는 태도로부터 〈좋으나 더 좋게〉라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천지개벽과 같은 일인 것이다.

혹자는 만족 정도가 높아지면 무언가를 실현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고 걱정한다. 〈실현해야 할 것〉이 하나의 Need(요한 가치)라면 〈만족사고〉도 하나의 Need이다. 실현에 집착하여 만족(지족, 감사)하지 못함으로써 곧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무수히 볼 수 있다. 왜 위태로울까? 만족할 줄 모르고 그저 일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자, 지족행복론이 〈이미 넘치는 소유(행복) 속에 있다〉라는 원리라면, 사실이 그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이미 넘치는 소유 속에 있다는 것을 사실로서 확실하게 경험해야 한다. 만일 이를 경험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만사고나 부정시각으로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넘치는 소유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길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할 정도로 지족명상을 시행하는 것이다. 지족명상은 감사명상이라 해도 된다. 지족과 감사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독교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불교의 행복론은 단적으로 소욕

지족(少慾知足)이다. 감사의 대상은 무한 우주에 있는 유형무형(有形無形) 유정무정(有情無情)의 모든 것이다. 무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긍정하고 그 긍정적인 관점에 의해 드러나는 긍정감(긍정적인 느낌)이 바로 감사와 지족인 것이다. 감사나 지족을 진부한 표현으로 여긴다면 그 뜻의 깊이를 간과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감사(지족)의 마음이 행복의 99.99%를 결정한다는 것을 유념한다면 진정 스치고 지나칠 덕목이 아니다. 필자는 동사섭의 5박 6일의 일반과정 수련장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20여개 되는데 〈지족(知足)〉이라는 한 주제에 전체 수련 시간의 1/5을 할애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지족명상을 안내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진정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 99.99%를 결정하는 지족 덕성을 기르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지족명상을 바로 지금 시행하기 바란다. 지족명상, 감사명상의 대상은 세상 모든 것이라 했다.

〈1〉 자가지족명상(自家知足瞑想): 세상을 셋으로 분류한다면 자기 자신과 이웃사람과 그리고 사물 정도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명상을 해보기로 한다. 자기 자신의 긍정점(자랑점)을 우선 10개 정도 명상적으로 정리해서 가족이나 친지들과 나누어본다.(수련장에서는 〈이 동네 긍정점 3003가지〉라는 주제로 명상 정리해서 나눈다)

〈2〉 사람지족명상 : 가족이나 동료나 친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긍정점을 우선 10가지 정도로 명상적으로 정리해서 나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대상으로, 아내는 남편을 대상으로, 혹은 아들이나 딸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긍정점(훌륭한 점이나 감사한 점 등)을 명상적으

로 정리해서 생일 선물로 표현해준다면 어떠하겠는가? 〈동사섭 수련생들 중에는 아내에 대해 혹은 남편에 대해 혹은 아들이나 딸에 대해 100 가지 긍정점(칭찬거리, 감사거리)을 워드로 쳐서 코팅을 하여 선물로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사람지족명상 차원에서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칭찬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은 사람에게도 적중하는 말이다. 가족들, 동료들, 선배, 후배, 친지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다. 문득문득 그 사람의 긍정점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 그때마다 적절하게 칭찬하는 것이다. 덕담은 진정 미덕 중의 미덕이다. 주변사람을 살려내는 것으로 덕담만한 것이 없다. 꼭 권하는 바이다.

〈3〉 사물지족명상 : 짐작이 되겠지만 우주에서 사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이 사물이다. 사물지족명상은 생활 속에서 늘 집히는 것들부터 하면 좋다. 눈만 뜨면 늘 보이는 것들: 방, 천정, 방바닥, 벽, 전구, 텔레비전, 전화, 책상, 연필, 볼펜, 종이, 책, 자동차, 칼, 밥, 김치, 국, 수저, 젓가락, 냉장고, 세탁기, 물, 공기, 중력,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계의 질서, 우주 등등 모든 것이다.

있고 없음의 차이 : 혹여 감사가 얼른 잘 안 된다면 〈있고 없음의 차이〉라는 촌철을 떠올려보면 좋다. 이 촌철이 나온 김에 삽화(揷話) 하나 이야기 해보겠다. 30여 년 전 지리산 백장암에 주석할 때이다. 볼 일 보러 변소에 갔다. 아차! 화장지가 없었다. 그거 낭패였다. 문득 그 단순한 화장지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크고 컸다. '있고 없음의 차이, 있고 없음의 차이, 있고 없음의 차이!'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의 〈있고 없음의 차이〉는 크다. 앞에 놓인 볼펜에 대해 감사한 느낌이 일어나

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볼펜이 필요한데 저 볼펜이 없다면...' 하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단순한 그 볼펜에 대해 감사한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그 '있고 없음의 차이'라는 말이 한 조각 금붙이라도 된 것처럼 얼른 메모를 해두고자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그 속에 항상 있어야 할 볼펜과 메모지가 없었다. '나'라는 사람은 방에까지 가는 사이에 잊을 가능성이 있는 터라, 풀잎파리 하나를 뜯어서 손가락에 감았다. 방에 들어가서 〈있고 없음의 차이〉라고 단상(斷想)록에 기록했다. 그 이래 〈있고 없음의 차이〉라는 말을 촌철 목록에 올리고 지족명상 안내를 할 때마다 끌어와 쓰곤 한다. 지족명상을 함에 있어 〈있고 없음의 차이〉는 도움이 될 것이다.

025. 초월행복론 :

일렀듯이 동사섭 행복론은 행복공식에서 도출된다. 행복공식을 보면 행복을 결정하는 변수가 일단 소유와 욕구 두 개이다. 초월행복록은 그 두 개 중 욕구를 잘 살핌으로써 드러난다. 분자(分子)인 소유(所有)가 제법 많다고 하더라도 분모(分母)인 욕구가 많아지면 결과적인 행복량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량의 적고 많음은 욕구하는 것들(Needs)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정도의 적고 많음을 의미한다. 소유가 5요 욕구도 5라면, 이는 5/5이니 결과는 1이다. 소유가 늘어나 15가 되었더라도 욕구가 30으로 늘어나버리면 결과는 1/2(0.5)밖에 안 된다. 그런데 만일 소유가 1이라 해도 욕구가 0.01 밖에 안 된다면 결과의 양은 〈100〉이 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욕구가 적어질수록 행복량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만일 욕구량이 영(零 zero)에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행복량의 극대화 내지 무한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초월론 네 개를 다루도록 하겠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용타스님은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주지, 성륜문화재단 이사,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 • 다루기 • 나누기』 『10분 해탈』이 있다.